

“대학 입학이 곧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전주비전대 거제 삼성중공업 입사 채용 설명회 참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미취업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삼성중공업 주요 협력사 채용 설명회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첨단기술 기반의 LNG선 대규모 수주와 관련하여 조선업계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삼성중공업의 주요시설 투어, 조선해양산업의 현황 및 전망, 내년 협력사 인원 총원 계획,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 협력사 채용 일정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전주비전대학교 홍순직 총장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채용을 요청했으며 이후 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주) 기술연수원은 전주비전대학교 학생 채용을 위해 지난 5월31일 전주비전대와 총 20명 선발 취업약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전주비전대 학생들은 협력업체의 숙식 제공과 복지혜택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

홍순직 총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삼성중공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학 입학이 곧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미취업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삼성중공업 주요 협력사 채용 설명회에 참가했다

를 바라며 대학 입학이 곧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운영

남원소방서는 23일 대산면 운교마을에서 다양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 마을단위 방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경감장치) 20세트 및 기초생활필수품 ▲마을회관 구급함 설치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교육 ▲기초건강 체크 ▲생활응급처치 교육과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변 환경정리를 실천했다. 한편 조용주 소방서장은 “다 함께 참여하는 나눔과 봉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조성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어촌공 순창지사, 농어촌 집 고쳐주기 앞장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조남출)는 23일 순창군 쌍치면 이모씨(77) 집에서 KRC 순창 희망나눔미 직원 18여명과 함께 농어촌 주택 집 고쳐주기 활동을 펼쳐 편안한 복음자리 새단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순창지사는 2018년까지 매년 1가구 선정하여 집 고쳐주기 봉사를 하였으며 2019년에도 순창군과 사회복지협회의 추천을 받아 현지 조사후 1가정을 선정, 3500만원을 가정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농가의 의견을 반영 지원하여 농어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이날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도배 및 장판교체와 주방싱크대 및 화장실 수선을 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수리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무주경찰,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맞아 교통안전 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23일 무주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를 맞이하여 참석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잇따른 고령자 및 농기계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상황별 안전한 보행방법 등 교통안전 상식을 직접 시범을 보이며 전달하였다.

또한 반사지 1500매와 홍보용품 500개를 배부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동민 임실경찰서장, 지역경찰관서 현장방문

제72대 이동민 임실경찰서장이 지난 15일 취임 이후 관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를 방문해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14개소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내 현황과 주요 현안업무를 살피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 이번 치안현장 방문에서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치안환경 조성, 업무에 유능한 경찰, 소통과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직원들에게 강조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오수지구대 방문 시에는 도박 피의자 검거 유공이 있는 김해규 경위와 전안성 경위에게 즉상을 수여하였고, 지역 경찰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평소 경찰업무에 도와주시는 협력단체를 만나 깊은 감사의 마음 또한 전달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장수경찰, 의무위반 예방 등 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2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 등을 위한 특별교육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박정원 서장이 직접 주관한 것으로 동료의 사기저하 및 경찰조직의 신뢰회복을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경찰관의 직무상 잘못된 사례 및 의무위반 행위 등을 중점으로 교육하였으며 유사비위 재발방지 또는 조직 내 자정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징계 현황 및 의무위반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인후3동분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돌입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회 인후3동분회(회장 황영섭)는 노인회 최초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9일과 22일 인후초등학교 사거리, 전복은행 이증지점 사거리 및 관내 경로당 등 20개소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현수막을 걸고 불매운동을 했다.

인후3동분회는 일본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멈추고 위안부,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할때까지 불매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영섭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인후3동분회장은 “우리 노인회 회원들은 36년간 일제의 핍박과 수탈을 고스란히 겪어온 산 증인이다.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보복규제를 중단할때까지 일본의 민행을 적극 규탄하고 전주시 전역으로 불매운동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